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방송의 마지막에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 ②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 ③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 ④ 끊임없는 도전만이 성공을 위한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⑤ 일의 성패는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 (물음) 발표자가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탄소발자국 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여 개인의 실천 의지를 강조한다.
- ②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약에 정부가 적극 참여 하도록 촉구한다.
- ③ 탄소발자국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 ④ 탄소발자국 제도 도입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인 기업이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 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3. (물음)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 중, 여학생이 든 사례에서 활용된 것은?

- ① 쉬운 부탁 먼저 하기
- ② 어려운 부탁 먼저 하기
- ③ 호의 베풀기
- ④ 선택하도록 하기
- ⑤ 긍정 대답 유도하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다음의 평가 항목에 따른 면접관의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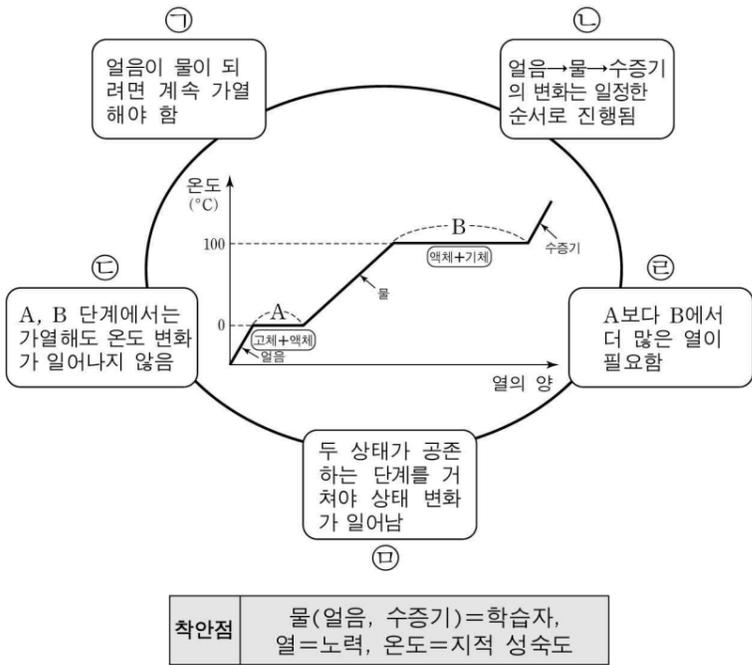
평가 항목	남		여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1. 자기 의사로 동아리에 지원하였는가?	√		√		①
2. 지원자의 성격이 동아리 특성에 적합한가?	√		√		②
3. 동아리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가?		√	√		③
4.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체계적인가?	√		√		④
5. 동아리 부원들과 화합하려는 자세가 있는가?	√			√	⑤

5. (물음) 면접관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핵심에서 벗어난 대답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있다.
- ②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면접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 ③ 지원자의 답변을 요약하여 지원자의 발언을 재확인하고 있다.
- ④ 보충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에게 발언을 구체화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 ⑤ 질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 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고, '지적 성숙의 과정'에 대해 연상한 것이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적 성숙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② ㉡: 학습자의 지적 성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③ ㉢: 노력을 계속해도 지적 성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다.
- ④ ㉣: 높은 단계의 지적 성숙은 이전 단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⑤ ㉤: 지식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지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7. <보기>는 체육 대회 때 사용할 현수막 문구에 대한 학급 회의 결과이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보 기>
- 협동심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자.
 - 현수막에 넣을 색채 이미지의 특성을 살리자.
 - 자연물을 이용해 비유하자.

	<색채 특성>	<문구>
①	정열 (붉은색)	우승을 향한 나의 일념 - 뜨겁게 불타오르는 가슴!
②	생명 (초록색)	한 그루 두 그루 모여 초록 숲 - 신록처럼 넘실대는 우리들의 함성!
③	희망 (파란색)	바다 위를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처럼 - 드넓은 운동장에서 펼치는 승리의 날개!
④	순수 (하얀색)	맑고 깨끗한 흰 구름처럼 - 정정당당하게 높은 곳을 향하여!
⑤	승리 (노란색)	나 혼자 승리하면 은메달! - 우리가 승리하면 금메달!

[8~9] 다음은 교복선정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한 글의 개요와 그에 대한 검토 사항이다. 8번과 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제목: 교복 디자인 선정에 관한 제안

- I. 도입 ㉠
 - 시대 변화에 따라 교복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
- II. 전개
 - 가. 교복 착용의 실태 ㉡
 - 1. 변형된 교복 착용 및 교복 미착용
 - 나. 실태의 원인
 - 1.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무시
 - 2. 교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3. 교복 디자인 선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 미흡
 - 다. 해결 방향 ㉢
 - 1.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반영
 - 2. 교복 디자인 선정 과정에 학생 의견 반영
 - 설문 조사(재질·색채·스타일), 공모전, 시범 착용 등
 - 3.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생활 지도 ㉣
- III. 정리
 - 제안 및 요청 ㉤

<검토 사항>

[수정·보완 의견]

- 도입: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 내용 추가
- 전개: 실태를 구체화하여 제시
 - 실태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향 제시
 - 논지와 관련 없는 내용 삭제
- 정리: 요청 내용을 상세화하여 제시

[자료 활용 의견]

- 글을 쓸 때 다음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음.

(가) 교복 구매의 기준 (%)

구분	치수	내구성	상표	기타
교복 첫 구매 기준	26.3	12.4	28.1	33.2
교복 재구매 기준	52.0	21.5	14.3	12.2

(나) 교복 변형의 실태 (%)

변형 경험 있음	변형 이유	
74.8	디자인	38.3
	치수	28.8
	유행	22.9
	기타	10.0

(다) 연구 자료

-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의복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 청소년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상징물로서의 옷차림을 통해 사회적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8. [수정·보완 의견]에 따라 위 개요를 수정·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교복이 요구됨’이라는 내용을 보충한다.
- ② ㉡에는 ‘교복 구입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③ ㉢에는 ‘교복 디자인 선정 과정 시 전문가 참여’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④ ㉣은 논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⑤ ㉤에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건의함’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상세화한다.

9. [자료 활용 의견]에 제시된 자료를 위 개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내구성’ 항목의 수치 변화로 보아, 교복 디자인 선정 시 옷감의 소재도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밝힌다.
- ② (가): 교복 재구매 시 ‘치수’ 항목의 수치가 큰 것으로 보아, 교복 디자인 선정 시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밝힌다.
- ③ (나): 변형 이유 중 ‘디자인’과 ‘유행’ 항목을 활용하여, 교복 착용 실태의 원인 중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④ (가) + (다): 교복 첫 구매 기준의 ‘상표’ 선호 경향으로 보아, 교복 디자인 선정 시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의 개성 표현 욕구를 반영해야 함을 밝힌다.
- ⑤ (나) + (다): 소속감 형성이라는 교복의 상징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성 표현이 가능하도록 교복 디자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10. 다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글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학교 도서관 이름이
왜 ‘슬기ㄷ롭’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 많은 지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이러한 책들과 만나게 해 주는 장소입니다. ㉠ 그리고 도서관 이름을 ‘슬기ㄷ롭’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슬기’가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해 가는 능력’이라는 순 우리말이고, ‘ㄷ롭’은 ‘강’의 순 우리말로써 인간이 모여 생활을 유지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온 ㉡ 터전입니다. ㉢ 강은 인간에게 혜택도 주지만 피해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ㄷ롭’은 도서관이 ‘슬기를 얻는 터전’, 그것도 작은 시내나 샘보다는 강처럼 우리에게 많은 슬기를 주는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슬기ㄷ롭’에 자주 ㉣ 들려 ‘슬기의 강’을 헤엄치면서 지혜에 대한 ㉤ 갈증이 해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① ㉠: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래서’로 고친다.
- ②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터전이라는 뜻입니다’로 고친다.
- ③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 단어의 기본형을 고려하여 ‘들러’로 고친다.
- ⑤ ㉤: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갈증을 해소하기를’로 고친다.

11.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A+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 어느 한쪽이 생략되어도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쏠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보기 2>

ㄱ.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이다
 ㄴ. 뒷북을 치다 ⇒ 뒷북이다
 ㄷ.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를 굶다] ⇒ 바가지이다
 ㄹ. ㉠ 닭 잡아먹고 ⇒ ㉡ 오리발을 내밀다 ⇒ 오리발이다
 오리발을 내밀다
 ㅁ. 무릎을 치다 ⇒ 무릎이다

- ① ㄱ은 ‘A’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② ㄴ, ㅁ을 보니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의미 쏠림 후의 ‘바가지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ㄹ의 ㉠ ⇒ ㉡는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⑤ ㄹ을 보니 어떤 관용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군.

1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 발화라 한다.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도 인용 발화로 본다. 인용 발화는 대개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 발화와 구분되어 쓰이나, 간혹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 ②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 ③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
- ④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
- ⑤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양에서 ‘천(天)’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 짝었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自然天)’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특히 상제(上帝)와 결부됨으로써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천(上帝天)’ 개념이 자리 잡았다.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天命)’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인 천명은 제사 등을 통해 통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 의식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다. 천명은 계속 수용되었지만, 그것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은 수정되었고, 그 기저에는 도덕적 의미로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자리하였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이어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천명 의식은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 ② 천은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 ③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④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
- ⑤ 내면화된 천은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다.

14.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특정한 사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 개념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 개념의 의미 변천, ㉢ 해당 개념에 대한 주요 사상가의 견해, 그리고 ㉣ 현대적 적용 양상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념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사상사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도 고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천’에서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 ② ‘상제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③ ‘의리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잘 발휘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 ⑤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16. 위 글의 천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함이 없다.

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ㄷ.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스르고 천을 따르는 자는 없고, 사람을 따르고 천을 거스르는 자도 없다.

ㄹ.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아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 가도록 맡겨 둔다.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①	ㄱ	ㄴ, ㄷ	ㄷ
②	ㄴ	ㄱ	ㄷ, ㄹ
③	ㄷ	ㄴ	ㄱ, ㄷ
④	ㄱ, ㄷ	ㄴ	ㄷ
⑤	ㄱ, ㄷ	ㄷ	ㄴ

17.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질어 건물 외벽을 점검했다.
- ② 질게 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 ③ 철수는 질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정원에서 꽃향기가 질게 풍겨 온다.
- ⑤ 해가 지고 어둠이 질게 깔렸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해저의 다양한 퇴적물 중에서 생물의 골격과 그 파편 등에 의해 생성된 것을 생물기원퇴적물이라 한다. 심해저의 가장 흔한 생물기원퇴적물은 ㉠ 연니(軟泥, ooze)이다. 이는 주로 죽은 부유생물의 껍질, 골격 등과 바람이나 유수에 의해 육지로부터 멀리 운반된 점토류가 섞여 형성된다. 심해저에서 연니를 형성하지 않는 점토류는 1,000년에 걸쳐 2mm 정도가 퇴적되는데 비해, 연니는 1,000년 동안 약 1~6cm가 퇴적된다. 연니는 표층수에 사는 부유생물의 양이 많을수록, 해저에서 형성된 후의 용해 속도가 느릴수록 많이 퇴적된다.

코콜리스나 유공충과 같이 탄산염으로 구성된 석회질의 생물체 잔해가 적어도 30% 이상 포함된 퇴적물을 ‘석회질연니’라고 하고, 규소를 함유한 규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생물체의 잔해를 30% 이상 포함한 퇴적물을 ‘규질연니’라 부른다.

석회질연니는 비교적 따뜻하고 얕은 곳에 분포한다. 왜냐하면 차가운 해수는 탄산염을 용해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포함하므로,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는 탄산염 성분으로 구성된 생물체의 골격이나 잔해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다. 심해저 표면의 약 48%를 덮고 있는 석회질연니는 대서양 중앙 부분과 동태평양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심해저 표면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규질연니는 탄산염이 녹는 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용승 현상으로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곳에 규질연니가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 규질연니를 구성하는 부유생물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용승이 일어나고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남극 부근에서는 용승 현상으로 규조류가 많이 서식하므로 심해저에서 규질연니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또한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길게 분포하는 용승 지역에 규질연니가 많이 형성된 것도 규질 생명체 중 하나인 방산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연니의 형성과 분포, 그리고 구성물의 내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퇴적물이 쌓일 당시의 고해양 환경, 생물의 서식 분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연니는 과거의 해양 환경을 연구하는 데 열쇠 구실을 한다.

* 탄산염보상수심: 탄산염의 공급량과 용해량이 같아지는 수심. 평균적으로 약 4,500m 임.

18. ㉠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니는 죽은 생물체의 잔해와 점토류가 섞여 생성된다.
- ② 유공충의 잔해가 40% 포함된 퇴적물은 석회질연니이다.
- ③ 표층수에 서식하는 생물체의 양과 연니의 양은 비례한다.
- ④ 규질연니는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도 발견된다.
- ⑤ 연니의 퇴적 속도는 심해저 점토류의 퇴적 속도보다 느리다.

19. 위 글에 제시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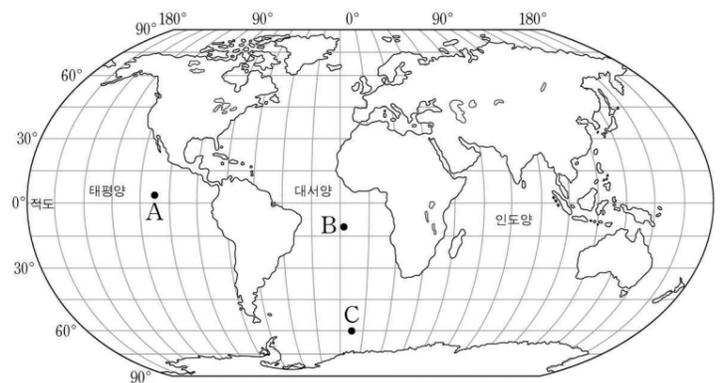
ㄱ. 연니의 생성 시기
ㄴ. 연니의 유형
ㄷ. 연니의 지리적 분포
ㄹ. 연니의 시추 방법
ㅁ. 연니 연구의 효용성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지도에서 시추 지점을 바르게 추정할 것은?

<보 기>

시추 지점 조사 항목	(가) 지점	(나) 지점	(다) 지점
수 심	약 5,000 m	약 2,500 m	
표층 수온 (상대적 비교)	낮 음		높 음
기타 사항	해수의 수직 운동이 활발함	탄산염 성분의 퇴적물로 구성됨	표층수에 방산충이 많이 분포함



- | | (가) 지점 | (나) 지점 | (다) 지점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끝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니어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땀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찌라

- 이육사, 「소년에게」 -

- * 진준가: 진주인가.
- * 한가: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

- * 청하: 푸른 연잎.
- * 노적 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 *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 ② (가)의 '녋'과 (나)의 '흔'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스지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쫓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의미한다.

23.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 의미이겠네.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25.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씩'이 '잎'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26. (다)의 ㉠과 ㉡을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잊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③ ㉠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 ④ ㉡은 '잊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⑤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양창곡의 연인이었던 강남홍은 그와 이별 후 백운 도사에게 무예를 배워 오랑캐의 장수가 되어 남장을 하고 명나라 원수 양창곡과 전장에서 맞서게 된다.

강남홍이 옥 같은 손을 들어 화살을 쏘니 시위 소리와 동시에 동초와 마달 두 사람의 갑옷이 쟁그랑하고 깨졌다. 두 장수가 더 싸울 뜻이 없어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왔다.

뇌천풍이 투구를 주워 다시 쓰고 벽력부를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조그만 오랑캐 장수야! 작은 재주만 믿고 무례히 굴지 말라.” 그러고는 다시 강남홍에게 달려들더니 홀연 몸을 솟구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14회 옥피리는 자웅(雌雄)의 음률을 주고받으며, 거문고의 아름다운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A] 각설. 뇌천풍이 분기탱천하여 도끼를 휘두르며 강남홍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부용검을 들고 서서 꼼짝도 않았다. 뇌천풍은 더욱 화가 나서 크게 소리 지르며 힘을 다해 강남홍을 공격했다. 순간 강남홍이 쌍검을 휘두르며 허공에 몸을 솟구쳤다. 뇌천풍이 허공을 쳐다보며 급히 도끼를 거두어들여는데 갑자기 쟁그랑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날아온 칼이 공중에서 떨어지며 투구를 쳐서 깨뜨린 것이었다. 뇌천풍이 황망하여 몸을 뒤틀며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강남홍은 다시 돌아보지 않고 칼을 거뒀다. 원래 강남홍의 검법은 깊고 얇음이 있어서 다만 투구만 깨뜨릴 뿐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뇌천풍은 이미 ㉠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자기 머리가 없음을 의심하니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려 자신의 진영으로 달아났다.

(중략)

강남홍은 백운 도사가 준 옥피리를 가지고 손삼랑과 연화봉으로 올라갔다. 멀리 명나라 진영을 바라보니 조용히 등불만 깜빡이는데,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강남홍이 옥피리를 꺼내 한 곡을 희롱했다.

이때 서풍은 쓸쓸히 불고 별과 달은 하얗게 빛나는데 원숭이의 슬픈 울음소리는 타향에서 떠도는 나그네의 시름을 돕는다. 찬 이슬은 옷깃에 가득 내리고 밝은 달은 진영을 환히 비춘다. 어떤 이는 창을 베고 누워 잠이 들고 또 다른 이는 칼을 치며 근심스럽고 슬프게 앉아 있던 때였다. 갑자기 바람결에 옥피리 소리가 아련히 반공에 퍼졌다. 처량한 곡조는 쇠와 돌도 녹이고, 흐느끼는 소리는 산천의 빛도 바꾸게 할 듯했다. 이때 명나라 십만 대군이 일시에 잠을 깨어 늪은이는 처자를 그리워하고 젊은이는 부모를 생각하여 흑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고 고향을 노래하며 일어나 서성거렸다. 군중이 자연히 소란해지면서 부대의 대오가 어지러워졌다. 소유경이 깜짝 놀라 동초와 마달을 불러 군중을 단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장수 역시

기색이 처량하고 행동거지가 수상했다. 소유경이 급히 양창곡에게 알렸다.

마침 양창곡은 병서를 베고 잠을 자려던 참이었다. 정신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늘에 올라 남천문에 들어가려 하니 한 보살이 백옥 여의를 들고 길을 막았다. 양창곡이 노하여 칼을 뽑아 여의를 치니 쟁그랑하고 땅에 떨어져 한 송이 꽃이 되어 붉은 빛과 기이한 향기가 천지에 진동했다. 양창곡이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다. 심중에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소유경이 황망히 군막 안으로 들어와 군중의 동정을 보고하였다. 양창곡이 놀라 군막 밖으로 나가 시간을 물어보니 벌써 4, 5경이나 되었다. 삼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영이 들끓고 서풍은 손에 든 깃발을 불어 흔든다. 바람결에 들리는 옥피리 소리는 애원하는 듯 처절하여 영웅의 마음으로도 비감해지는 것을 어찌지 못할 정도였다.

양창곡이 귀 기울여 들어 보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오.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옛날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 통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를 흠어 놓았다더니 누가 이 곡조를 부는지 모르겠구나. 내 어렸을 적 옥피리 부는 것을 배워 곡조를 기억한다. 이제 한번 시험하여 군사들의 처량한 마음을 진정케 하겠다.”

그는 상자에서 옥피리를 꺼내 한 곡을 불었다. 그 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호방하여 마치 천 리에 펼쳐진 봄날의 물이 장강에 흐르는 듯, 삼월 조화로운 바람이 아름다운 나무에 불어오는 듯했다. 그러자 처량했던 마음은 절로 풀렸으며 다시 한 곡을 불자 호탕한 마음이 무럭무럭 생겨나 군중이 평온해졌다. 양창곡은 다시 음률을 바꾸어 한 곡을 불었다. 그 소리는 웅장하면서도 기상이 커서 군사들의 기세가 늠름해졌다. 이에 군사들은 북을 쓰다듬고 칼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고자 하였다.

- 남영로, 「옥루몽」 -

2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1점]

- ① 강남홍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
- ② 강남홍은 손삼랑과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잠입하였다.
- ③ 양창곡은 꿈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 ④ 양창곡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과시하고 있다.
- ⑤ 양창곡은 적이 습격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였다.

28. ‘옥피리’ 연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남홍의 연주는 군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 ② 강남홍이 연주한 곡은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었다.
- ③ 양창곡의 연주는 강남홍의 연주와 달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 ④ 두 사람의 연주는 전쟁 상황에 신비감을 불어넣고 있다.
- ⑤ 두 사람이 연주한 곡조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묘사되었다.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교 언어학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밝히고, 친족 관계가 확인된 언어들의 조어(祖語, 조상 언어)를 추정하며, 각 언어들이 조어에서 분화된 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교 언어학을 통해 세계의 언어를 여러 어족(語族)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언어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 언어의 역사도 알아볼 수 있다.

언어 간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교 언어학에서는 비교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 내었다. 비교 방법에서는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한다. 음운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이다. 친족 관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고 하자.

	봄	불	하나	
A 언어	tom	tel	tark
B 언어	som	sel	sark

위의 예에서 우리는 A 언어와 B 언어 간에 보이는 /t↔s/의 대응을 통해 이들 언어 간에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운의 대응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면 각 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의 예를 보자.

산스크리트어	pitár
라틴어	pater
고대 영어	fæder

이들을 비교해 보면 첫 자음이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에서는 /p/로, 고대 영어에서는 /f/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더 조어에 가까우므로 이들의 기원은 /p/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음들을 추정하여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의 조어가 ‘pātēr’였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것을 ㉠ 외적 재구라 한다.

한편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것을 ㉡ 내적 재구라 한다. 언어는 변화 과정에서 시간적·공간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을 통해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간적 흔적은 문헌을 통해, 공간적 흔적은 방언을 통해 확인된다. 한 언어 안에서 어떤 단어의 어형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때 외적 재구보다 내적 재구를 사용하게 된다.

3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확인된 후에 그 언어들의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 ② 조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언어의 가장 오래된 어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③ 한 언어에서 과거와 현재의 단어를 비교하여 더 오래된 어형을 추정하는 것은 내적 재구에 해당한다.
- ④ 비교 방법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언어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말에 /m/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유사성은 배제해야 한다.
- ⑤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 간에 음운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34. ㉠보다 ㉡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b.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c.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 ① a
- ② b
- ③ c
- ④ a, b
- ⑤ a, c

35. 위 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자료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	pom(봄)	pul-(불다)	pil-(빌다)
만주어	fom(계절)	fulgije(불다)	firu-(빌다)
몽고어	hon(년)	hülie-(불다)	hirüer-(빌다)

- ① 국어의 ‘pom’과 몽고어의 ‘hon’을 보니 그 조어는 ‘phom’이겠군.
- ② 만주어의 /f/가 몽고어의 /h/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 두 언어는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국어의 ‘pil-’과 만주어의 ‘firu-’를 보니 국어의 /l/이 만주어의 /ru/에 대응하는 음운 대응의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국어의 /p/가 만주어의 /f/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만주어가 국어보다 예전의 모습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만주어의 /m/이 몽고어의 /n/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조어에서 갈라져 나온 후 /n/이 /m/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가 일어났겠군.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우편물들은 발송 지역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편물 분류 작업은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다. 이때 자동분류기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학습은 상호 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즉, 자동분류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
필기체 숫자	5500				5
입력 특징					
목표치	5	5	0	0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 위 그림은 필기체 숫자를 가로, 세로 8등분하여 연필이 지나간 자리를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입력 특징을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으로 학습할 때 분류기에 목표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감독할 수 있다. 즉, 입력 특징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면 분류기는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하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용하는 학습을 ㉡ 감독학습이라 한다. 숫자 분류기에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에 대한 목표치가 제공되면, 분류기는 감독학습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에서 분류기는 네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입력 특징과 목표치를 통해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통해 두 개의 '5'와 두 개의 '0'을 각각 같은 숫자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5'와 '0'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해 내는 함수를 만든다. 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그림의 실험 데이터는 숫자 '5'로 인식된다.

그러면,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까?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 이와 같이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을 무감독학습이라고 한다. 예컨대 위 그림에서 네 개의 필기체 숫자에 대한 입력 특징만 주어지면, 무감독학습은 비슷한 입력 특징을 가진 숫자들을 ㉢ 모아 '5' 또는 '0'에 대해 군집화하는 함수를 만든다. 무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실험 데이터는 '5'의 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학습된 자동분류기는 실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그 성능이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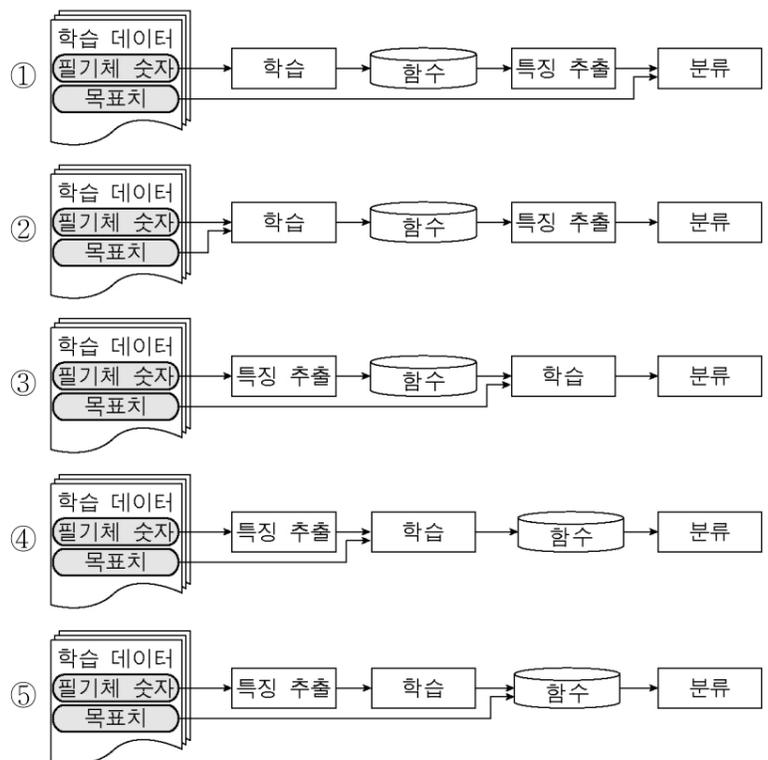
36. 위 글의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총 6종류의 목표치를 이용한다.
- ③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일정한 종류의 필기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 ④ 자동분류기는 0부터 9까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력 특징을 사용한다.
- ⑤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필기체 숫자의 목표치가 없으면, 유사한 입력 특징을 가진 것끼리 모은다.

37. 휴대 전화의 기능을 소개하는 문구 중, ㉠의 기능을 담은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화가 걸려 오면 등록된 수신 거부 목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목록에 있는 번호이면 수신을 거부한다.
- ② 휴대 전화를 든 손으로 등록된 단축 번호를 공중에 쓰면, 전화기가 숫자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건다.
- ③ 사용자의 음성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자와 타인의 음성을 분류하면, 사용자의 음성으로만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휴대 전화에 닿는 형태를 유형화하여 접촉과 비접촉을 구별하면, 전화벨이 울리는 중에 휴대 전화에 손이 접촉할 경우 진동으로 전환된다.
- ⑤ 휴대 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 영상들에서 색상값과 얼굴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과 얼굴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면, 사람이 움직여도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한다.

38. ㉡을 이용한 필기체 숫자 분류기의 구성도로 옳은 것은?



39.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취합(聚合)하여 ② 융합(融合)하여
- ③ 조합(組合)하여 ④ 규합(糾合)하여
- ⑤ 결합(結合)하여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 주지 않는 데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될수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 들만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 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이랍니다.

그는 때로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해서까지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고 무안을 주었다.

- 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날마다 효자 꿈에 행복하시지요.

㉠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위를 짐짓 외면해 버리곤 하였다. 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얄은 소갈머리가 가없어 죽겠다는 듯 슬픈 눈길로 그를 한참씩 건너다보고 있다가는 조용히 혼자 한숨을 짓고 말 뿐이었다.

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날 생각을 않고 있었다. 아니 그는 젊은이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아주 떠나 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너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너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가 있어야…….” 사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그는 아직도 가막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가없는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몇 번씩 결심을 다짐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은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새를 사더라도 전날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지질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그 빌어먹을 잠자리의 악몽 때문일 거라 자신을 변명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혀 대고 있는 빛줄기의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 새를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기다렸다. 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질 않았다. 그건 마치 어린애들 숨바꼭질과도 같은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다.

한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내에겐 또 한 가지 ㉠ 이상스런 일이 일어났다.

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 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한 시간쯤이나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깃불빛이 다시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했다.

이번엔 물론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빛줄기를 앞세운 ㉡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내는 벌써부터 ㉢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 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빛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제 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 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다. 사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숲들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휘저어 대고 있었다. 불빛을 맞은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는 모른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윽고 야전잠바 옷깃을 들추고 천천히 벤치 위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차분한 손짓으로 야전잠바 주머니 속을 뒤져 풍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사내가 그 야전잠바 옷깃으로 불빛을 가리며 입에 문 풍초에다 막 성냥불을 그어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후루룩 —!

어둠 속 어느 방향으론가부터 느닷없이 사내의 잠바 깃 속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것이 있었다. 담뱃불을 붙이려다 말고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에 든 성냥불부터 날째게 꺼 없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께 깃 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재빨리 더듬어 냈다.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 숲 속의 불빛에 쫓겨 온 한 마리의 새였다.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옷깃 밖으로 끌려 나온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이 몹시 팔딱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옷자락에 성냥불을 켜올 때 녀석은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든 게 분명했다.

“빛에 쫓긴 녀석이 외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 짐승이란…….”

사내는 녀석의 ㉤ 분별없는 행동이 희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해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내는 잠시 녀석을 어떻게 해 주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녀석을 금세 그냥 그대로 놓아 보낼 수는 없었다. 녀석은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빛줄기에 쫓긴 녀석이 사내에게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놀란 녀석을 무작정 다시 어둠 속으로 달아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녀석에게 좀 안심을 시켜서 놓아주기로 작정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 가막소: 교도소.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4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새 가게’ 이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 ②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⑤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를 부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포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공원 숲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공원 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통해,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 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 ②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든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43. ㉠~㉣ 중,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차 안에서처럼 두 개의 의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스크린이 창문처럼 설치되어 있다. 관객들이 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 대화 속의 단어들에 상응하는 이미지들이 화면 가득히 나타나 입체적 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는 소머리와 미그노뉴의 디지털 아트 작품인 「인터넷 타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은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분명 종래의 예술관에 대한 도전이다. 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함께 예술 작품 자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객체가 됨으로써 이제 예술은 그 어떤 ㉤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적 영역이 된다. 이 때문에 종종 예술은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모든 ㉥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 해방 공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이 예술을 상호 작용 공간으로 만들 경우 미적 해방 공간마저 일상적 삶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예술 이외의 관심과 욕구로 얼룩지고 마는 것인가? 넓게 보자면 인간은 세상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란 세상과의 ㉧ 부단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상호 작용이 외적·내적 요인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낳을 때, 인간의 경험은 대립과 분열 속에 빠지며, 이것이 지속될 때 삶은 위기를 맞는다. 반면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될 때 인간의 삶은 ㉨ 극치를 이룬다.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 미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미적 체험은 현실적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의 신성화가 아니라, 예술의 세속화를 원한다.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이러한 미적 체험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을 만든다면, 이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 수용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예술가만의 창작 결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② ㉡: 수용자가 완결성을 갖는 작품을 변형하면서 이를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실용적, 윤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 혹은 과학적 호기심 등 예술 작품 자체를 향유하려는 것 이외의 관심과 욕구를 말한다.
- ④ ㉣: 사람들이 삶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술 작품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한 인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삶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45. <보기>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며, 이 의지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충동일 뿐이다. 이 충동은 하나가 만족되면 새로운 충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은 맹목적 충동의 사슬이 불리일으키는 불만족과 갈등에 시달린다. 미적 관조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인간은 잠시나마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① 예술의 세속화는 자기 보존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 ② 예술의 세속화는 상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술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 ③ 예술의 세속화는 역으로 예술을 인간의 맹목적 충동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닐까?
- ④ 예술의 세속화는 오히려 인간이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 ⑤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키므로 삶의 통일성에 대한 경험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46. 위 글의 「인터넷 타기」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 중, ㉡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전화기라는 단어를 말했다. 수많은 종류의 전화기가 실제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나타났다. 아마 작가는 영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생생함을 전달하려고 한 것 같았다.
- ② 얼굴이란 단어를 말하자 수많은 얼굴 모습이, 인간을 말하자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미지가 나타났다. 한순간이나마 세상의 관심과 욕구에 초연한 채 바로 내가 순수한 예술가가 된 것 같았다.

- ③ 정말 재미있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영상으로 나타났고, 스크린을 만지니 영상이 정지하기도 했다. 나는 이 단어, 저 단어를 말하며 다양한 영상을 보았다. 컴퓨터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에 감탄했다.
- ④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인터넷 검색하듯이 대화 속의 단어에 상응한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스크린에 이미지로 등장한 사물들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와는 달리 무언가 신비스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 ⑤ 생활이 어려워 결혼반지를 팔았던 일을 아내가 이야기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없지만, 반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옛일을 회상했다. 삶과 작품 공간이 하나가 되고, 이 속에서 아내와 나도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다.

47. ㉠~㉣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 ② ㉡: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 ③ ㉢: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 ④ ㉣: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
- ⑤ ㉤: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취나 경지.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 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계에 엎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훔날리는 초설(初雪)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 종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깔을 쓰고 바랑*을 걸머지고, 깡매기를 들고 나온다.

초부 (지계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 종 네가 쳤니?
 도념 그러네요. 언젠 내가 안 치구 다른 이가 쳤나요?
 초부 밤낮 나무해 가지구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닷다가* 바랑은 왜 걸머지구 나오니?
 도념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초부 왜? 스님이 동냥 나가라구 하시든?
 도념 아아니요. 몰래 나가려구 해요.
 초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데두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도념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뭐.
 초부 아예, 그런 생각 말구,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거라.
 도념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구 별렀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구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초부 어머니 아버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도념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고 하니까 방문 열구 웬 부인이 쌀을 퍼 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구 있드니 별안간 ‘도념아, 내 아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 내려오든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초부 가려거든 빨리 가자. 꺾꺾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 테니?

도념 비탈길루 가겠어요.

초부 그럼 잘—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람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등걸 구멍에다 파 둔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구요. 동지선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십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적.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염불 소리만 청정히 들릴 뿐. 눈은 점점 꺾꺾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 함세덕, 「동승」 -

* 바람: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 깽매기: ‘깽과리’의 전라도 방언.
* 닳다가: 난데없이.

4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사에는 대화, 방백, 독백 등이 있다. 대화는 등장인물 간에 주고받는 대사로, 인물들의 관계를 알려 주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기능을 한다. 방백이 관객을 청자로 상정한 대사라면, 독백은 배우가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 촉발된 혼잣말이다. 독백은 사건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배우가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연극의 서사에 시적 분위기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 ① 두 사람의 대화는 초부와 도념이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초부가 도념의 결심을 헤아리고 도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도념이 초부와 헤어진 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심리적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독백을 한 것이군.
- ④ 도념의 독백은 절을 떠나는 사건을 지연하고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군.
- ⑤ 독백 후 도념은 말을 가급적 억제하고, 한숨이나 시선 혹은 신체 연기를 활용하여 심리적 정황을 전달하는군.

49. ㉠~㉣의 음향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관객은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다.
- ② ㉡에서 초부는 관객들이 음향 효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기하고 있다.
- ③ ㉢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 ④ ㉣에서는 음향이 생성되면서 도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⑤ ㉤에서는 음향이 도념과 주지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며 심리적 여운을 증폭한다.

50. 위 글의 ‘비탈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속성	이해
①	갈라짐	초부와 헤어져 홀로 길을 떠나야 하는 도념의 처지를 보여 준다.
②	내려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념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③	벗어남	도념이 절에서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려 준다.
④	시작됨	도념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임을 알려 준다.
⑤	가파름	도념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